



“큐레이터는 직업이 아니다
강렬한 열정으로
늘 예술 작품 속에 있어야”

댄 캐머런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 코스 지도교수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해외 미술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국내외 큐레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2기 국제큐레이터코스(9월~9월5일)가 전 세계 젊은 큐레이터들이 참여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모든 수업 과정이 영어로 이뤄지는 이번 코스에는 한국 2명을 포함, 국제 공모를 통해 선발된 15개국 23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워크숍, 시각문화예술 관련 현장방문, 비엔날레 행사 현장참여, 그룹스터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제 미술계를 이끌 차세대 큐레이터로 성장하고 있다.

지도교수인 미국 뉴올리언즈 비엔날레의 창설자이자 유명 큐레이터인 댄 캐머런(Dan Cameron)으로부터 이번 큐레이터코스 성과와 전망, 광주비엔날레의 나아갈 길 등을 들어봤다.

-큐레이터코스에 대한 소개와 수업 진행 상황은.

▲이번 큐레이터 코스의 강사진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과 내년 제4회 광주지자

-좋은 큐레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대미술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큐레이터는 관람객들이 현대미술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문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대 미술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변했다. 이 단체의 ‘미친 생각’이 사회를 바꾼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를 바라보는 해외 화단의 평가와 개선점은.

▲10년 전에는 광주비엔날레를 따로 설명해야 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아는 정도로 성장했다. 상하이, 요코하마 등 아시아의 많은 비엔날레 중 광주는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현대 미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인류의 ‘시각문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또 광주비엔날레는 제2의 도약을 할 때가 됐다. 광주 시민 중 몇 명이나 집안에 그림을 걸었는가?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광주비엔날레가 누구나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현대 미술을 즐기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15개국 23명 참여 체계적 교육
광주비엔날레 제 2의 도약할 때
일반시민 현대미술 이해 도와야

인비엔날레 승효상 감독, 중국의 대표 건축·예술가 아이웨이웨이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또 수강생 대부분이 현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이기에 강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강사와 수강생들이 함께 미술을 기획하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의미있는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큐레이터는 직업이 아니다. 하나의 놀이를 체험하는 것이다. 강렬한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수십년 동안 미국의 모든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예술과 함께했다. 큐레이터는 늘 예술 작품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큐레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한 자선단체가 “당신의 미친 생각이

어린이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 공연

내일 5·18기념문화센터

어린이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가 20일(오전10시20분, 11시20분, 오후 1시10분)까지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올리버 트위스트’는 여러 차례 영화 등으로 만들어져 친숙한 작품이다.

고아원에서 자란 올리버는 심한 학대를 견

디다 못해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유대인 악당에게 끌려가게 된다. 소매치기를 하려다 동료의 죄를 뒤집어쓰고 체포된 올리버는 한 자선가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지만 또 다시 악당들에게 붙잡히게 된다.

극단 ‘유리가면’의 작품으로 이종은·김소연·박인현·양수형·이신애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9월3일 개막

판소리·무용·기악 경연 ... 공연도 다채



국악 임방울

광주문예회관

광주 출신 국악 임방울(1905~1961) 선생은 오랜 세월 동안 ‘소리’를 통해 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진 예술가였다. 그가 부르는 ‘쑥대머리’는 관객들의 애간장을 녹였고, ‘쑥대머리’와 ‘호남가’가 실린 음반은 한국과 일본, 만주 등지에서 무려 120만 장이 팔려나갔다.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18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오는 9월3일~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등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임방울국악재단(이사장 김종재)이 주최하는 이번 국악제는 판소리·무용·기악 부분 등의 경연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된다.

3일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명민씨가 ‘쑥대머리’를 부르며 비보이팀 플라임 코리아인 사물놀이와 맞춰 멋진 춤을 선보인다. 또 미니창극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이 공연되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극단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9월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학생부(판소리·기악·무용) 경연이 열리며 5일에는 일반부 경연이 진행된다.



안숙선 명창

특히 개막 축하 공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과 하선영 가야금병창단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경연 전에는 광주문예회관 국악당 앞에 세워진 임방울 선생 동상 앞에서 탄신 105주년을 기념하고 경연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악 임방울 예술혼 모시기’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손광은 시인의 추모시가 낭송되며 전통무용가 김덕송, 박명민씨와 이은하씨가 ‘성주풀이’를 선보인다.

국악을 사랑하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방울판소리 장기 자랑’(3일 오전9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은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임방울 선생의 대표곡인 ‘쑥대머리’, ‘호남가’ ‘추억’ 중 한곡을 부르면 된다. 접수 마감은 9월 2일까지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미술과 인문학’ 7탄 장경화 상록전시관장

화이트큐브 탄생과 포스트모던미술관

광주일보사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공동주최하는 현대미술강좌 ‘현대미술과 인문학’ 일곱 번째 강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상록전시관 장경화 분관장(사진)이 강사로 나와 ‘화이트큐브의 탄생과 포스트모던

미술관’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흰벽’이란 뜻을 지닌 화이트큐브는 뉴욕현대미술관의 초대관장 알프레드 바에 의해 탄생한 개념이며, 20세기에 등장한 대형 현대미술관을 의미한다.

장 분관장은 강의를 통해 화이트큐브의 탄생과 문제점, 포스트모던미술관의 태동, 현대 사회에



서의 지역미술관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한다.

장 분관장은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시과장 등을 지냈으며,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현대미술관의 방문객 중심 경영관리 연구’ 등의 논문을 썼다. 문의 062-613-538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에서 1박2일 ‘시조 문학축제’

20일부터 한전문화회관

시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문학축제가 영광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다.

열린시조학회(회장 윤금초)와 영광 칠산문화회(회장 강구현)가 공동

주최하는 시조 문학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영광 한전문화회관 등지에서 개최된다.

문학축제 첫 날에는 ‘시조의 형식 미학과 현대적 계승’이라는 학술 세미나가 열리며 시조 낭송, 시조창, 한곡무용, 태권무 등 다양한 공연도 펼

쳐진다. 이와함께 김숙희·배유식·이태순·김정연·문주환·문수영씨 등 시조시인들이 자신의 시조집에 사인해 독자에게 주는 도서 기증행사도 함께한다.

행사 둘째 날 문학기행에서는 기독교 순교성지, 불갑사를 비롯해 조운생가와 해안도로, 연안 김씨 종택,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문의 010-8598-592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원(VAT포함) *예약 및 상담 - 대표전화 : 062) 228-8000 / 예약실 : 062) 228-4711~2 | 주최 및 주관 |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하남점,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